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 의견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밥을 먹게 해주어야 함에도 노인 “무료급식” 명분 아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이 식사를 못하고, 다른 복지관으로 가서 먹어야 하는 건, (불편한 장애우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노인분들은 증을 만들어줘서 드시게 하면 될거라 사료됩니다. 사무실 선생님들이나 강사님들 모두 다 친절하시고, 명랑하셔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활동보조님들께서도, 남동장애인복지관은 수녀님들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서비스가 어느복지관보다 잘 이루어진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수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해결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수렴내용

복지관에 대한 관심어린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선, 노인 무료급식소에 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사업은 남동구청에서 위탁받고 관리감독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무료급식소는 일반 노인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가 정한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복지관은 현재 장애인들에게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무료급식소를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어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상시 이용인에게만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시이용인의 수가 100명이 넘고 대부분의 이용인이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식사지도도 하나의 교육훈련이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 현재도 식사시간에 식당이 많이 번잡하고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라 상시 이용인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점 너그러운 양해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의 설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설명 및 안내를 위해 내방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게시일 : 2016년 5월 17일